



“장기기증은 희망과 행복의 나눔”

심정민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 사무총장

“장기기증은 나눔을 통해 새로운 생명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불교계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정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 신임 사무총장(사진)은 우리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아직 미약하다며 올해는 다양한 사업과 홍보를 통해 불교계와 일반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립 27일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심 사무총장은 30년 간 육군에 복무했고, 전역 후 3년 10개월 간 군종교구 실장을 역임했다. 심 사무총장은 군종교구 실장을 지내면서 중무행정, 포교 업무 시스템 구축, 인사관리 등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기증희망자 2500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3500명을 올해 목표로 내세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찰 및 불교계 행사에서 장기기증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계의 장기기증이 타종교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계종·국제선센터와 연계한 홍보와 캠페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수행자들의 참여가 불자들의 동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행자의 실천덕목으로 생명나눔운동을 확대하고, 큰 스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 포교원 등과도



협의 중이며 이후 전 종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기증 홍보와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서울·경기지역 사찰 장기기증 캠페인은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매월 초하루법회와 정기법회에 참여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계 내부의 장기기증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2010년 12월 현재 장기기증 희망자 2만6700명,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는 2만

1266명에 이른다. 1998년부터 시작된 치료비 지원 사업은 총 430명의 환자에게 18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고, 130여 회에 걸쳐 6300명의 헌

혈증을 지원했다. 심정민 사무총장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은 처음 접하는 업무라 두려움이 있지만 이사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직원들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e2@daum.net

30년 육군 복무 후 군종실장 역임 교계 장기기증 확산 주력 목표

“소리 공양으로 환우 돕고 싶다”

국악신동 송소희양,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위촉

“장기 기증은 생명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소리 공양을 통해 어려운 환우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싶어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소희(임성중 2·사진)양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또박또박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국악신동으로 불리는 소희양은 1월 20일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 받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송소희양은 이 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 희망등록서에 직접 서약하고, 회원증도 교부 받 았다. 또 용돈을 조금씩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일민 스님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현재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의 사찰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소희양은 5살 때부터 국악과 시조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국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최근에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소희양은 수덕사의 스님들로부터 “덕산과 수덕사의 정기를 소희양이 다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기를 보였다. 송소희 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올해 신년 계획으로 세웠다. 소희 양은 “훌륭한 국악인이 되기 위해 12잡가와 국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재능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e2@daum.net

축구가 하고 싶은 성빈이의 꿈

생명나눔, 1월 치료비 지원자 선정

1998년 당시 두 살이던 이성빈(남·14세·사진)군은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약물치료와 주기적인 입원 치료를 해왔다. 그러나 2002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2004년에는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게 된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빈군은 북막투석을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는 3년 전부터 혈액투석을 권유했으나, 성빈군의 어머니는 치료비 문제와 어린 나이에 혈액투석을 시작하면 앞으로 치료방법 없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성빈군은 오랜 북막투석으로 북막염, 부종, 경련, 시력저하, 심장질환 등 합병증까지 발생했다. 2010



년 11월에는 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수술을 받아야 했다. 나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빈군에게 최선의 치료는 신장이식이다. 그 동안 안 몇 차례의 이식 기회가 있었지만 문제는 수술비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수술비 때문에 이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정이다. 성빈군은 또래 친구들처럼 축구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성빈군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생명나눔) 박기범 기자

행원문화재단, 승가대 도서관입비 5000만원 전달

행원문화재단 주영훈 이사장이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중앙승가대 도서관 도서구입 기금 5000만원을 중앙승가대 이사장 지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주영훈 이사장은 “승가대 중앙도서관에 경전과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후원금을 내게 됐다”며 “도서기금 후원에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승가대에 경전부가 많이 부족해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지만 들어갈 책이 없다”며 “세계장경과 해인사 고려대장경 목판본을 인쇄한 경전 등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되는 승가대 중앙도서관은 강의실에서 가까운 곳에 세워졌으며 연면적은 4600㎡ 가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학인스님과 교수들을 위한 열람실과 자료실인 2층에는 대장경과 불교관련 간행물과 열람실이, 3층에는 인문사회와 일반 간행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착한소비-착한나눔으로 설 차례상 준비하세요

연우와함께, 시중가보다 20%저렴하게

수익금 5% 민족문화수호기금 적립

불교계 사회적 기업 연우와 함께(대표이사 이상근)가 제수용 과일을 시중가격보다 20% 싼 가격으로 3000세트(각 9만5000원) 한정 공급하고 있다. 제수용 과일 세트는 경산 대추 300g, 정안 밤700g, 나주 배 4개, 상주 귤감 10개, 풍기 사과 5개 등 지역 특산물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구성됐다.

다양한 설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추천상품으로 흑홍삼(25ml×30포, 13만 6000원), 곱감(반진시 75g 이상 20개, 건시 59g이상 28개), 3.1kg, 18만 5000원), 고통한과 한들곡식(7만원), 청운향 삼각갈락 석성골(2.4kg, 72만원), 죽방벌치 어부립 연우 1호 (곡물,볶음, 조리용 각 500g), 법성포 굴비 왕비(1.9kg, 20미, 7

만원) 등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고, 잣, 호도 혼합세트, 제주 참다래, 제주 한라봉 등 과일 선물세트와 대승사 다기세트(다관, 속우, 찻잔5, 차호, 개반, 26만원, 11만원)과 풍주, 지대방 금급화차·발효차·세차·중작·특우전 등도 준비했다. 건강선물 세트로는 지리산 산양산삼, 경육고를 상품화한 등육고, 방산꿀이 있다.

일반 식품과 생활잡화도 사찰에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했다. 전복볶음고추장과 된장을 비롯해 영평사 죽염장류 세트는 다양한 가격대로 선물의 다양성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장류를 비롯해 영평사 자죽염 세트, 대나무추출 천연염색유로 만든 대나무 양말, 천연염색 스카프 등 생활용품은 물론 황성한우 세트도 마련했다. (02)733-1088 이상언 기자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 출범

교도소·구치소 불교포교 전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교화시설에 포교를 전담하는 교정교화전법단이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교정교화전법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출범식에서 혜종 스님은 서울구치소 지도법사 가섭 스님 등을 비롯한 27명의 스님들에게 교정교화 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스님들은 서울·경기·인천지역과 대구지역 33개의 교정기관을 전담할 계획이다.

혜종 스님은 “부처님의 사명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정·교화기관에서 포교활동을 펼친 스님과 재가 불자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종단의 무관심에 송구스럽다”며 “서울을 기점으로 각 도시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정교화전법단은 △각급 재소자 교정교화활동과 범죄 주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원 대상 법회 및 포교활동 △교정교화전법단 소속 지도법사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법단은 향후 대전·광주지역을 전담할 지도법사 스님을 모집해 18개 교정기관에서 포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혜종 스님은 현강 스님에게 교정교화전법단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나 기자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민족문화 지키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 구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간 의견을 수렴하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은 1월 17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협의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 템플스테이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연2회 정기회의를 통해 템플스테이 사업 방향, 시설·프로그램·운영 인력 양성·홍보 등 운영사업 자문, 운영사찰의 건립 및 제안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와 운영 사찰간 정보를 공유한다.

자문위원장은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간사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을 선임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범주사 주지 노현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 방향도 공유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사업비 중 축소 및 국고지원 중심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불교문화수익사업을 꾀한다. 또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사업단의 위상 재정립과 자생력 강화,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한 연계 교육사업 및 연구 컨설팅 기능 강화에 힘을 결의했다.

올해 사업방향은 조계종(총무원장 지승)의 정부대응책과 함께 정부의 민족문화 개선 인식부족으로 잡았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정부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정부에 템플스테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민족문화를 수호할 것을 밝혔다.

이상언 기자

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 재계약 갈등 일방적 내용 보도 언론사 제소키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인 직원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나눔의 집은 해당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1월 17일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업무 규정과 지시 사항을 불이행,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올해 3월로 예정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런 내용이 한 언론사에 알려지면서 한·일 연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보도 내용이 일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A씨는 직무유기 및 태만, 지시불이행, 허위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를 시킨 상태다. 지금도 본인의 업무미흡이나, 태도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정지 상태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e2@daum.net

생명평화결사, 100일 도보 순례

평화운동단체인 ‘생명평화결사’가 동인천 문화공간 스페이스 빔에서 생명평화도보순례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1월 22일 열었다. 각 계 인사 100인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100일 간 지역 순례가 이

어진다. 참가자들이 하루씩 순례를 담당하고,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각 종 좌담회와 문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명평화결사’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각종 교계와 시민사회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박기범 기자

사암연 최초 신문 ‘서초불교’ 발간 계간지, 타블로이드 16면 무료배포

서초불교사암연협회(회장 법안)는 1월 13일 ‘서초불교’ 신문을 첫 발행·배포했다.

서초불교신문은 서초지역 불교 소식을 알리는 포교지로 서초구 지역 내 33개 개별 사찰 소식과 행사를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창간호는 6000부 인쇄됐으며 지역 내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서초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지역 구 국회의원, 구의회, 시의회 등에 무료 배포됐다. 신문은 타블로이드판형으로 16면 구성됐으며 봄·여름·가을·겨울 4차례 발행한다. 사암연협회는 2012년부터 월간지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불교 발행 편집인은 서초구 우면산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 사무총장은 방배동 광명선원 도헌 스님, 편집위원장은 잠원동 관심사 주지 태범 스님이 맡았다.

법안 스님은 “서초지역 소식을 알리고 지역 사회의 이슈를 공유 및 방향을 논의, 종교간 화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암연협회 사찰 33곳 중 50%만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 포교와 복지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언 기자

체계적 공부 지도

재가자 하안거 봄산철 정진대중 모집

삼매체험 수련회 · 단기출가

단식 · 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연역력 강화

청소년 · 대학생 · 일반 *수련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노병 · 고혈압 · 성인병 · 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 · 아토피 · 생리관계 · 요요현상 없음
- 공부힘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